

## 자아존중감 : 간호사들의 문제\*

이 경 순 역  
(삼육대 간호학과 부교수)

환자한테는 건강관리팀 중에서 간호사 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가?

오늘날 간호사들은 중요하고, 위험성이 높으며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좋지 못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시키고 질병을 예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중 대다수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건강관리 체제내에서 거의 힘(power)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모순점은 간호 연구가로 하여금 오늘날 간호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간호사의 전문직 사회화라는 것을 언급하도록 고무해 왔다. 우리가 우리의 임무인 환자에게 훌륭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 있는 사람을 유치하고 계속 우리의 직무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요구되는 간호 역할과 일치하는 전문적 주체성을 가지고 이를 믿어야만 한다.

자아존중감은 일생동안 사회화의 과정을 통하여 계발되는 “내적 자아를 의미하는”개인적 주체성의 일부이다. 심리적인 완전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상황이 우리의 주체성에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를 우선 평가하고, 그 상황이 자아개념을 증진시키면 추구하고, 자아개념을 위협하면 그러한 상황을 피해야만 한다. 자아 존중감이란 우리가 상황을 평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중요하며, 성공할 수

있고, 가치있다고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일치되게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확고한 자아 주체성과 좋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업무를 더 잘 수행한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의 성취와 직무 만족은 우리의 전문적 자아존중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효과적인 치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일찌기 간호연구에서 자신을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덜 하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자신의 무지가 타르나는데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는 신념을 검증하였다. 그 연구에서 자신이 심리적으로 약하다고 느끼는 간호사는 치료기법으로써 의사소통을 적게하며 환자라도 덜 만나려고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자아존중감은 힘의 원천이며, 성공에 대한 잠재력을 강화시킨다.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선택을 하거나 재원을 얻으려고 할 때 자주 다른 직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안정된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만이 변화불 제시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하는데, 이에 새로운 시도를 원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서 유발될 수 있는 적대감, 분노, 비난등을 견디 낼 수 있다.

\* “Self-Esteem ; A Problem for Nurses”, The Canadian Nurse, Nov. 1990. pp19~21

누가 간호사들이 자아 존중감이 결여되었다고 하는가? 자아존중감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변화하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던대로만 고수하는 것, 권위에 대한 공포, 주도성에 대한 위축,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 변화에 대한 저항, 강압적 태도 같은 행동들이며, 이러한 것들은 많은 간호사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간호사와 의사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핍은 간호사의 열등감에서 기인되고, 따라서 간호사들은 그들의 중요한 중재를 보고하지 않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의사에게 환자의 안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자치료에서 간호제안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간호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간호에 대한 공적인 견해(public view)의 중요성이 거론되었으나 최근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두가지 종류의 존중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곧 자신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과 타인에 의한 자기 존중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신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간호에 대한 공적인 이미지는 간호사들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간호사 자신들의 이미지 보다는 덜 중요한 것이다.

Coopersmith는 간호를 논의하는데 유용한 기틀을 제공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리 자신이 가치있다고 느끼는데 기여하는 4가지 요소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힘(power), 중요성(significance), 수행능력(competence)과 덕(virtue)이다. 힘이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과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고, 중요성은 타인이 우리를 수용하고 가치있게 본다는 느낌이다. 수행능력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개인적 목표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능력이며, 덕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한결같이

행동하는 능력이다. 이 각각의 요소가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자기 가치감을 적절히 계발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 힘(power)

간호의 무력감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의학과 간호를 구별하지 못한 것, 간호실무를 위한 과학적 근거의 결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인식부족, 전문적 단일체의 부족이다. 의학으로부터 우리의 전문성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에 대한 인식은 의료처방을 수행하는데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간호의 상호 의존기능은 독립기능을 희생하므로 소중히 간직되어 왔다. 더군다나 주종관계에서, 우리를 의사의 일에 대한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평가나 인식은 거의 없는 셈이다.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는 데는 사려깊은 판단과 기술과 기교를 요한다는 사실에 대해 평소에는 별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다가 처방이 잘못 수행되거나 환자에게 불평거리가 될 때에만 의사가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우리가 종속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의학과 힘을 겨룰 수는 없다. 간호의 힘을 기르는 길은 의사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닌 자율적인 간호행위에 놓여 있다.

전문분야에 있어서 힘의 주된 원천은 타분야에서 가지지 못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다. 간호실무를 위한 과학적 지식의 결핍은 간호의 독자적인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며, 간호사가 효과적인 간호 힘의 원천이 의학이라고 인식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간호실무에 이용될 간호연구의 계속적인 성장, 간호이론의 발달, 간호진단의 확인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간호진단이 설정되고 이에 기초한 이론들이 계발되면,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이 확인될 것이고, 간호힘의 토대가 설정될 것이다.

이미 간호사들은 환자의 안녕에 영향을 미

치고, 환자의 적응과 회복에 영향을 주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러한 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것에서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간의 안위에 핵심을 두고 있는 간호는 질병 제거에 핵심을 두고 있는 치료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많은 환자에게 있어서 치료(cure)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위(comfort)가 거의 전부라는 점이다. 간호사가 예방적 측면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 간호행위를 증진하며, 만성질환과 죽음을 조절하며, 발달 위기 동안에 대상자를 보호하고, 질병에 직면했을 때 인간성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잠재적인 간호힘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광범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나의 단체로서, 우리는 전문적 단일체의 막대한 잠재적인 힘을 빨리 인식하지 못하였다. 간호관념들의 마찰, 팽창하는 기술의 압력, 여러 수준의 교육방법, 비효율적인 지도력,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자위에 많은 변화 등으로 인해 조각난 간호는 전문적 조적을 저지하는데 실패해 왔다. 많은 간호사들은 정신적으로는 '혼자 있는 사람'이고,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그들 개인적인 실패를 개탄하고 있으면서 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무시해 왔고, 건강관리 체제를 지도하는 의미 깊은 참여감을 간과해 왔다. 전문연합체를 지지하는 것을 부정하므로써, 이러한 간호사들은 우리 자신들의 실제적인 성취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부력감을 지속시키고 있다.

간호의 고유한 힘의 기초는 간호실제의 두 가지 속성, 즉 건강관리체제에 대한 이해와 환자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에 기인한다. 우리는 의료절차와 치료에 대한 지식이 있고, 운영되고 있는 병원체제에 익숙하므로 대상자(환자)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 총괄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뿐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환자 곁에 상주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유일한 지식을 개발하고 환

자가 상황을 판단하는 정도, 반응유형, 증재에 대한 반응과 잠재적 자원 등에 대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 건강관리팀의 어떤 구성원들도 환자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며, 이것은 또한 독자적인 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권위를 성립시키게 된다.

### 중요성(Significance)

간호는 아주 중요하며, 우리 직업은 '근본적인 봉사'로 비쳐지며, 또한 쟁의권을 부인해 왔다. 간호봉사가 결여되면 병원도 문을 닫고, 입원도 그치며 의료봉사도 정지되게 된다. 환자들은 간호의 가치를 이해한다. 과다한 심장 발작이 있었던 한 의사는 간호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환자한테 간호사가 의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가 믿었는가? 의사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의사로서 그는 항상 간호사를 사무비서 정도로 생각했었고, 간호사는 환자한테서 일어난 일을 알고, 효율적으로 처방을 수행하고, 올바른 투약을 했으면 좋은 간호사로 여겼는데, 지금 그는 한 환자로서 간호사를 천사로, 자신의 생명의 은인으로 생명줄로 보게 되었다.

위기 간호에 관한 한 훌륭한 연구에서 간호봉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훌륭한 병원의 가장 두드러진 요소 중 하나는 임상 단위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높은 질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다. 가장 훌륭한 병원은 환자의 요구에 계속적이고 협동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많은 문제를 사전에 배제하도록 의사와 간호사간의 책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간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두가지 제한점은 첫째 간호수행은 눈에 잘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음은 간호업무의 전형적인 성격이다. 간호실무가 눈으로 볼 수 없는것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사람들은 간호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간호가 문제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고, 적

응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종종 간호중재의 바람직한 결과 그 자체가 의학적 치료의 성공이기도 하다.

간호를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간호는 의사-간호사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혼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공헌도는 종종 의사가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제안으로 그쳐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는 환자에 대한 재원을 얻기 위하여 의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만약 이때 우리의 제안이 의학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면 기절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서 간호가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간호가 점점 더 비가시적인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가는 직관적으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종종 그들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정의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간호문제가 명백하게 표출되기 전에 간호과정의 결과를 무시하고 곧 바로 중재를 시도할 수 있다.

많은 모델과 이론이 간호를 기술하고 고증하는데 사용되었지만 간호 실무의 실재(reality)를 포착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직무분석은 구별된 업무를 강조하나,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사용해온 직관적이고 인지적은 기술은 무시해 버린다. 실무 표준이란 최소한의 요구이지 최대한의 수행은 아니다. 개념적 기쁨이란 이론가의 생각에 따라 간호에 관한 어떤 이상을 그린 것이지, 간호가 실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질적 간호 연구는 간호사가 실제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법, 우리에게 관련된 현상과 간호걸정을 내리는 요소들을 기술하므로 간호과정을 명백하게 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전문적 자아 존중감에 주된 장애가 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간호가 여성과 인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간호는 여성의 직업으로 간주되어 왔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간호는 별로 중요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여성의 사회화는 간호의 자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길러졌다. 이것은 간호학이 의학을 추종하는데 공헌했다. 남성 우월성은 군인모델에서 간호를 조직화 하였고 그래서 겸손, 복종, 종속과 순종이 일반적인 덕으로 되었다. 더우기 수많은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자아 존중감이 낮다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다.

### 수행능력(Competence)

우리 자신의 목적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능력은 모든 전문직에 있어서 평생동안의 도전이지만 특별히 간호사들은 그들 직무에서 독특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일기 단체로서의 간호사들은 이용가능한 시간과 에너지 때문에 비현실적인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는 높은 성취가들이다. 우리는 규범에 따라 이상적인 실무 표준을 기대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이상에 부합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업무가 참으로 중요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저해하고, 자아개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간호교육의 취약성은 신규 간호사가 그들의 발전과 경험의 현재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구별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하는 장소가 어디이든지간에 간호사의 역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증가된 업무 압박과 생산성 증가에 대한 요구는 더더욱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저하시키고 있다. 간호를 관찰한 한 보고서에서, “의사한테서 간호사에게로 책임과 실제 업무가 천천히 전가되고 있는데, 이는 자주 무계획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들으며, 재정적인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일거리가 한계를 넘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법적인 간호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보다 민감해지므로,

우리는 환자와 관련된 활동에서 보다 더 보호를 받아야만 하고 실상은 우리의 업무가 아닌데도 “우리가 서기에 있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루에 불이 쏘아지면 우선 환자한테 가지 못하고 물을 닦아야 되는 것 등 우리에게 위임되는 새로운 직무에 대해 우리는 항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 실무회의를 구성하고 간호사도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는 고도의 수행을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결핍이다. 우리는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서는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경험을 통해서만이 전문가(숙련자)가 배출된다. 임상간호사들은 한 곳에서 5년이상 머물게 되면 종종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간호사만이 그 병실에서 전형적인 환자의 반응이나 특수화된 기술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일 수 있다. 임상에서 전문가 역할 모델의 결핍은 간호사에게 간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보게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간호사는 간호에 능지를 가지기 위해 전문가를 바라보아야만 하고, 승진하는데 어떤 단계를 거치게 하므로 임상지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덕(Virtue)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신조에 일관되게 행위를 조절하는 능력은 간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간호실부에서 윤리적인 딜레마는 잘 고증된 문제로 우리가 일상의 업무에서 협상해야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관리윤리 교과서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문제는 의료나 기술과 관련된 것이며, 본질적으로 의사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간호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문헌에서도

아직 잘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일에 대해 우리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면 간호사가 부적절한 의료처방을 수행하면서 간호사는 환자에 대하여, 고용주에 대하여, 의사에 대하여 3중 부담을 지게 된다. 간호사와 간호의 가치에 대한 보다 나은 인정이 지금 우리 전문직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의 도덕 규약으로 보다 중요시 되어야 한다. 모든 전문직에 있어서 동료의 견해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간호에 있어서 간호실무와 전문적 성공에 대해 기록하고 이를 서로 나누므로써, 간호사는 이전의 상황에서 전환할 수 있고, 자신이 잘 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배운다. 간호행정자들은 일차적인 간호 제공자인 일반 간호사들을 중요시하는 간호철학과 실무를 발전시켜야 한다. 간호사들은 조직안에서 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자주, 또한 정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야 한다. 전문가로서 간호사의 자아개념은 대부분 전문적 발전의 성숙도에 도달하는데 달려있고, 여기에는 자신이나 직업에 만족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의 자아개념은 일생을 통한 사회화의 산물이고, 사회적, 역사적인 힘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지만, 간호자체는 역사적, 사회적 힘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역사를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간호사는 변화될 수 있다.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는 것은 건설적인 변화의 시작이다.

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전문성을 보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환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재성립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서로 나눕니다.